정읍근현대사연구회 역사기행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체험에서 배운다"



▣ 답사 장소: 관내 일원(칠보/산외/태인/덕천/이평/화호)

▣ 답사 일시: 2015.11.21(토) 09:00~17:00

▣ 참석 인원: 인문학 강좌 1기생 · 정읍역사문화연구소 · 정읍N사람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 증산도 연지도장 · 역사동아리

▣ 답사 안내: 이진우 · 서혁기 · 정원기 · 곽형주 · 안후상 · 이상섭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정읍근현대사연구회 역사기행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체험에서 배운다"



정자와 모정을 결합한 '시정'(이평면 팔선리 서산마을)

■ 답사 장소: 관내 일원(칠보/산외/태인/덕천/이평/화호)

■ 답사 일시: 2015. 11. 21(토) 09:00~17:00

■ 참석 인원: 인문학 강좌 1기생 . 정읍역사문화연구소 . 정읍N사람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 증산도 연지도장 . 역사동아리

■ 답사 안내: 이진우 . 서혁기 . 정원기 . 곽형주 . 안후상 . 이상섭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정읍근현대사연구회 역사기행

■ 답사코스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출발(9:00)-칠보 행단마을 시천교 묘역-산외 목욕리 솟대마을-소고당 고단여사 고택과 가사비(산외별곡)-태인 미륵불교/무극대도 터(고등공민학교 자리)/점심(정읍/맷돌순두부)-이평 예동마을 만석보 훼파비와 동학농민혁명 최초 봉기탑-팔선리 서산사와 서산마을-신태인 화호리 구마모토 농장 창고/다우에 타로 농장 사무실/농장장 사택-덕천 도계서원/정읍 도착(5:00)

■ 태인 무극대도 터(상유도창 하유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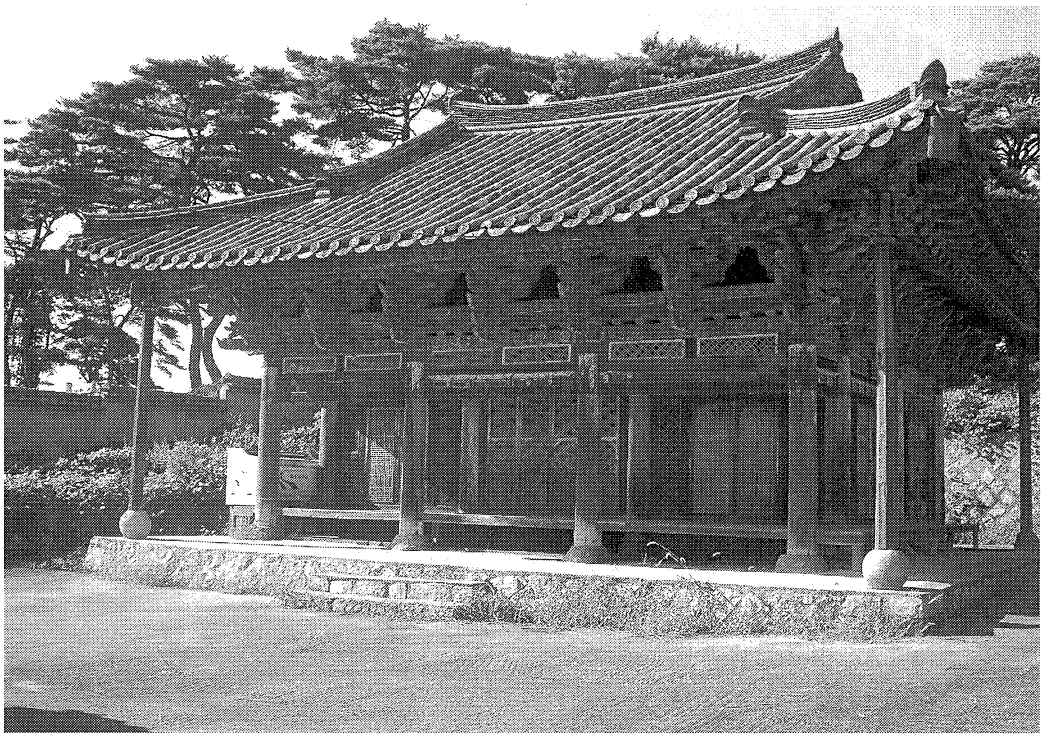
태인 도창현(道昌峴)을 순행하시다가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군신봉조지국(群臣奉詔之局)이며 상유도창(上有道昌)하고 하유대각(下有大覺)하니 백의군(白衣君) 백의신(白衣臣)의 운회지지(運廻之地)니라. 〈무극 6장 46절〉

초6일에 혹한을 무릅쓰시며 임원 몇 사람을 거느리시고 도창현에 거둥하셔서 치마바위를 확인하신 다음, 그 바위를 기준으로 도장의 경역(境域)을 정하시고 그 경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명하시니라. 경역은 치마바위 위로 약 2,000평, 아래로 약 3,500평, 도합 약 5,500평이며 땅 임자는 부근에 사는 김창집(金昌集) 등이니라. 지형은 완만한 경사의 밭인데 값은 정조(正租) 350석으로 흥정되어 다음해 정월 그믐까지 전부 매수되니라. 이때 도장영건 명령을 전달받은 도인들이 스스로 앞을 다투어 성금을 헌납하니라. 〈태극 3장 61절〉

상제님께서 태인 대각교(大覺橋) 옆의 상수답(上水畓) 20여 정보를 매입하셔서 본부 직영(直營)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으로 경비와 식량을 자급(自給)하게 하시고, 도창현 너머에 5천 여 평의 치성답(致誠畓)을 두셔서 치성미를 자족(自足)하게 하시니라. 〈태극 3장 82절〉

■ 무극대도 도장

정산은 임술(1922년)년 12월 4일 28세 되는 생일에 임원들에게 일시 중단되었던 도장 건립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무극도의 임원들이 과거에 구성된 도장 영건 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그 후보지를 도주에게 물으니, "도장의 기지는 태인(泰仁) 도창현(道昌峴)이 천장길방지지(天藏吉方之地)니라, 그러나 그곳에 치마바위가 있어야 한다"하고 이상우 등에게 찾도록 하였다. 그들이 도주의 뜻에 가합(可合)한 곳을 물색하여 보고하매 5천 5백 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하니 댓가는 벼 3백 50석이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그때의 치마바위란 그 부지의 표면에 솟아난 바윗돌 몇 개였으나 명령에 따라 흙을 파서 대지를 정리하니 높이 약 3장(丈)에 길이 약 50칸이나 되는 성채(城砦)모양, 병풍모양의 바위가 신기한 경관을 이루었고 대지 중앙에서는 샘물이 솟아나서 후일 수 천 명의 용수에 넉넉하였다.(도인들은 이 샘을 유천(乳泉)이라 불렀다)



무극대도 영대 건물(현재 부안 동진면 당상리 경주이씨 재실로 사용되고 있다.

1923년 3월 1일 기공치성을 올렸다. 건축 공사를 시작할 때 '진업단'이라는 노동단체를 조직하여 무상의 노동으로 봉사하도록 하였다. 병인년 9월에 본부가 낙성되니 건물은 도솔궁과 영대를 비롯하여 포정부, 정침, 사무실, 창고, 문루 등 120간에 이르는 대규모 건축이었다. 을축(1925)년 4월 15일 도장의 주요 건물인 영대와 도솔궁이 준공되고 그 밖의 건물과 시설은 다음 해 섣달에 완공되었다. 을축(1925)년 4월 28일 성전 준공치성과 영대 봉안치성을 올리기에 앞서 영대에 증산을 봉안하였다. 또한 치성 하루 전에 성전 앞 광장에 모인 수 천 명의 신도 앞에서 도의 이름을 '무극대도라고 밝혔다.

도장에 건립한 교당의 규모를 보면 영대와 도솔궁을 중심으로 하여 회관, 사무실, 거실, 주방, 창고 등이 19동에 간수(間數)는 240간으로 건물의 구조를 보면 목조와가에 단청을 한 전통적인 고전형이었다. 도장의 동서남북 사방에 사대문을 내고 담장을 둘러치니 이와 같은 웅장한 교당과 도장을 건설하는데 공사 기간은 3년 여 소요되고, 동원된 인원이 12만 명이요, 들어간 경비가 5만 여 원이었다.

영대는 48간으로 맨 위층에는 증산상제의 영위를 모시고 1층과 2층은 집회장으로, 내부는 3층이나 외부는 2층으로 되어 있다. 도솔궁은 내부 4층, 외부 3층, 모두 72간의 건물로 맨 위층은 33천을 봉안한 도솔궁으로 입춘 · 입하 · 입추 · 입동 네 절후날 삼십삼천에게 제사하고, 3층은 칠성을 봉안한 칠성전으로 칠성신에게 제사하고, 2층은 육정신과 제대신명을 봉안한 봉령전이라 하였는데 삼십삼천 외의 모든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하고, 맨 아래층은 중궁이라 하여 도주의 수련실로 정하였다. 영대는 외면은 2층 내면은 3층인데 맨 위층은 대순절과 화천절에 천사에게 치성하고 2층과 아래층은 교 간부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1936년(병자) 4월 총독부는 증산계 각 교단에 대 폭압령을 내렸다.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국내의 사상통제를 강행할 때 증산계 신도는 민족의식을 고집하는 준민족운동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정읍경찰서장은 수 만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도솔궁과 영대 등 건물을 불과 수 천 원씩에 경매하여 뜯어버리니 도솔궁과 영대는 부안사람 김성기가 뜯어다가 선대 묘소 재실로 개축하였다.

목조기와 형태인 영대의 2층을 뜯어다가 지은 이 건물은 본래 내부는 3층이나 외부는 2층인 총 48간의 건물이었다. 도솔궁은 역시 고전 건물로서 내부는 층이나 외부는 3층인 총 72간의 건물로 3층은 변산 내소사에 팔려 종각으로 개축되었으나 나머지 19개 동 총 120여 간의 건물은 모두 철거하여 산매되었다.

정산이 태인도장을 은밀히 떠난 뒤 임원 등은 매일 수 백 명씩 도장으로 찾아오는 신도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느라 애를 썼다. 신도들이 몇 백 명 모이니 당국에 대해 불온한 언사가 오가고 이로 인해 일본 경찰 수 백 명이 도장에 주재하게 되었다.

1948년(무자) 설날 정산은 임원들에게 도명이 '태극도'임을 온 세상에 공표하고 현창토록 지시하고 주문의 무극도주를 '태극도주'로 고쳤다. 이어 훈시하기를 "우리 도의 개화와 낙화가 모두 태인 땅이었으니 태인은 '큰 씨'라 싹이 트고 자랄 연유이나, 꽃이 피었다 짐은 결실을 위함이니라.〈하략〉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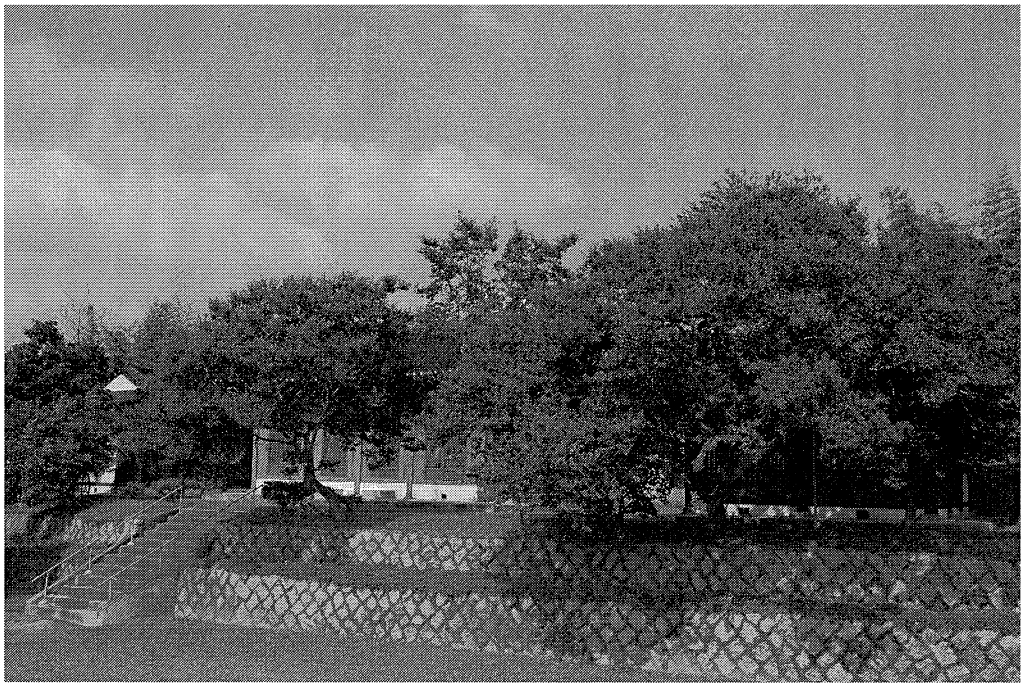
태인에 있던 무극대도 도장의 모습은 1936년 출간된 『정읍군지』와 국립전주박물관 『정읍특별전 도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안으로 옮겨졌던 영대 건물은 최근 부안 동진면 당상리에서 발견되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이 건물은 단층이고 사찰 건물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면 나무로 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층은 천장이 낮아 일어설 수 없게 축소 변형되었다.

보천교와 무극대도는 정읍과 태인에서 각각 자리잡고 일세를 풍미하였다. 이들은 1925년대에 증산의 뒤를 이어 각기 성대한 도장을 건립하였으나 1930년대 일제의 탄압으로 모두 성전 건물을 철거당하였다. 보천교가 차교주의 서거를 맞이한데 비해 무극대도는 조교주가 무사한 가운데 부산으로 이주하여 감천동 시대를 열고 교명을 태극도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감천동은 오늘날 영화 촬영지와 마을 재생 프로젝트에 의해 전국의 명소로 널리 알려졌다. 대지가 총 5,500여 평인 무극대도의 터는 여러 번 전매되어 학교,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모 종교 소유로 고물수집소로 이용되고 있다.(『범증산교사』(홍범초 저), 태극도 홈페이지)

-서혁기-

■ 태인기술학교(태인기술중학교) 연혁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군 태인면 태성리
연혁: 서기 1951년 태인명륜고등공민학교 설립/1954년 3월 2일 태인기술학교인가
역대 교장: 장호상, 이오진, 최현철, 장용상
현황 실태: 6학급, 320명(여 63), 졸업생 164,528명(숫자가 부정확하게 인쇄됨)
이사장: 정해룡



태인 미륵불교 전경(사진 제공: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서혁기 연구원)

태인 무극대도터는 정인표를 교주로 하는 미륵불교에 넘겨져 태인기술학교가 설립되었다. 태인의 미륵불교를 세운 이는 수산 정인표이다. 그는 1897년(고종 광무1년) 음력 1월 23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성동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인표(寅杓)요 호는 수산(秀山)이다. 1934년 1월 10일 득도하고 하산하여 4년간 전국을 순력하면서 도를 펴다가 1940년에 왜화를 입어 6년간 감옥에 갇혀 생활하였다. 1945년 광복 후 태인에서 다시 교문을 열어 교화하니 신도가

1만여 명에 이르렀다. 1950년 1월 10일 교세가 날로 커짐에 정읍 태인면 태성리에 '미륵불교 영원회 본부'라는 간판을 걸고 종교 활동을 양성화하고 그해 4월 1일 당국의 허가를 얻어 태성리에 인제고등공민학교를 세우고 불우한 아동 150여 명에게 초등과정을 가르쳤다. 1951년 2월 14일에는 길흉화복에 대하여 설하고 교육사업을 해야 한다고 설하였다. 1951년 5월 1일 재정난으로 폐교상태에 있던 태인명륜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하여 학생 120여 명에게 정상적인 수업을 계속할 수 있게 했으며 학교 운영 상태가 우수함을 인정받아 1954년 3월 25일에는 태인기술학교로 승격되었다.

정수산이 선화한 뒤 새로 교주가 된 정공일은 교단 내의 재산 640만원을 묶어 재단법인 영원학원을 만들어 문교부에 제출하여 1955년 12월 28일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1961년 8월 28일 태인기술학교의 교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도들의 성금으로 2개의 교실을 증축하였다. 1968년 10월 20일 태인기술학교 교실 2개를 증축하고, 1970년 8월 30일 다시 교실 2개를 증축하였다. 19830년 2월 운영난으로 태인기술학교의 운영권을 넘겨주었다.(『정읍향토편람』, 향토지편찬회, 1965/홍범초, 『법증산교사』, 도서출판 한누리, 1988)

-서혁기-

■ 태인초등학교 57회(도창골27 카페)에 실린 글

정산 조철제의 수제자인 장덕원(혹은 장득원. 편자 주: 이정립이 쓴 『증산교사』에는 판정(判正)이라는 주요 직책으로 기록됨: 서열 4위급)이 1919년경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전라북도 태인으로 건너와(이때부터 종교를 따라 경상도민들이 태인으로 이주를 많이 했음) 미륵불교 포교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장덕원은 독립운동을 하다 검거되어 투옥되었고, 8 · 15해방과 함께 석방되어 교육 사업을 펼쳤다.

1947년 3월 1일 태인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고, 1951년 5월 1일 태인기술중학교를 설립하여 아들 3명중 장남인 장호상(86세/현존)이 태인기술중학교 초대

교장으로 재직 하였고, 장호상이 도교육위원으로 출마하면서 3남인 장주상이 교장직을 이어 받았으며(2남 장한상은 그 당시 신태인읍 부읍장), 태인기술중학교는 34회에 걸쳐 학생 총 3,001명을 배출하고 1983년 2월 20일 폐교하였다. 학교 교훈은 "성실하게 배워 자립하고 창조하는 사람이 되자"였다.

-서혁기-

■ 칠보 행단 시천교 묘역(정읍시 칠보면 행단1길 5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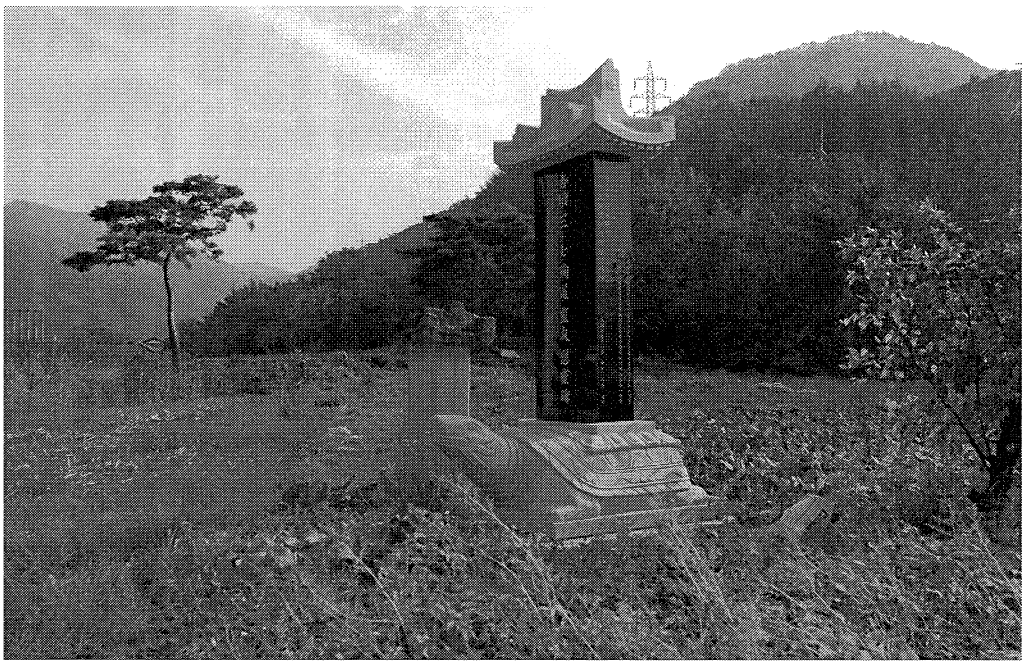


사진 제공: 정읍동학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이진우

칠보 행단리(杏壇里)에서 구절치(九節峙)로 올라가는 도로 우측에 21기의 군묘(群墓)가 있다. 1907년 겨울 임실과 순창 등지의 시천교도들이 화호에서 시천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돌아가다가 칠보 행단리 객점에서 투숙 중에 산외 동곡에 주둔하던 일본군 헌병대의 기습을 받았다. 헌병대가 총포를 난사하여 교도 30~40명 중 21명이 학살당했다. 당시 시천교는 친일파인 이용구가 교주였으며 친일 종교 단체였다. 강증산은 『대순전경』에서 이들을 일진회원이라 규정하고 참변을 예언하였다고 한다. 일본 측은 폭도로 오인했다고 변명하였고, 한일 양

국 정부에서는 조위금 수 백 원을 지급하고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비를 세워 조위하였다. 동곡의 일본 헌병대가 칠보 행단 객점의 시천교인들을 기습하여 사살한 것은 이들 시천교인들이 독립운동을 기도하는 것으로 여긴 까닭이다. 이들은 순창, 임실, 태인의 교도들이다. 한때 연고자가 이장을 해가 남은 묘지가 수기에 불과했으나 최근 묘역을 정비하면서 20기가 갖추어졌다.

창강거사 교도사 이인상 찬(蒼崗居士 敎導師 李寅相 撰) 「호남 정읍 칠보산 향단 21인 순교 묘비명(湖南 井邑 七寶山 杏壇二十一人 殉敎 墓碑銘)이란 석비(石碑)가 있으니 성명은 다음과 같다.

포덕사(布德師) : 허용진(許龍進)

신도사(信道師) : 방진교(房鎭敎)

권도사(勸道師) : 임재춘(林在春), 임동규(林東奎), 임영준(林永俊), 장문엽(張文燁), 임경섭(林敬燮), 장달엽(張達燁), 서완산(徐完山), 진진옥(晉進玉), 김기조(金奇祚), 유익현(柳益賢), 양양옥(梁良玉), 최석구(崔錫九), 전영균(田永杓), 김기홍(金奇弘), 김보현(金保賢), 김순열(金順烈), 정만(鄭滿), 최호봉(崔護鳳), 정인왕(鄭仁王)/(『정읍문화재지』, 정읍문화원, 1999)

2014년에 추모비를 건립한 동학대정원 천진교는 1920년 해월의 제자 삼암(三庵) 가운데 하나인 구암(龜庵) 김연국(1857~1944)이 창교하였다. 교단 소재지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이다. 수운과 해월의 교통을 김연국이 계승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교조는 김연국이다. 김연국은 교조신원운동과 동학농민혁명 9월 봉기에 대도소장으로 충청도 보은에서 기병하여 북접군을 이끌었다. 혁명 실패 후 동학교문의 재건에 힘썼고 1901년 피체되어 무기징역을 받고 옥고 4년 만에 교인들의 구명운동으로 출옥하였다. 1906년 창설된 천도교의 대도주로 있다가 1906년 시천교의 대례사가 되었다. 1912년 이용구가 죽자 서울 가회동에서 교당을 세우고 '제화교'라 했다가 '시천교'로 다시 고쳐 불렀다. 송병준 등이 이끄는 견지동 시천교와 김연국 등이 이끄는 가회동 시천교로 분립되었다. 1920년에 계룡산 상제봉에서 천제를 올린 다음 상제교로 개칭하였다. 1944년 8월 7일 김연국 서거 후 아들인 김덕경이 교통을 제수하여 1960년 '천진교'로 개명하였다. 1984년에 충남 6.20사업(계룡산 군사기지 건설사업) 추진으로 본부를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최전성기에 50만 명이던 교세는

다수의 교도가 이탈하면서 현재는 현저히 신도수가 감소한 상태이다. 신도안 보상금을 놓고 분쟁이 일어 김덕경의 큰아들인 진묵은 보상금을 가지고 대전에 대동학연구원을 별도로 세웠다. 차자인 김진택이 천진교를 맡았다. 신도안의 방대한 토지를 소유한 재력을 바탕으로 교육 사업에 참여하여 1920년 4월에 신도초등학교의 전신인 신도유신학교를 설립하였다. 2014년, 동학농민혁명 두 갑자 되던 해에 칠보 행단마을 시천교묘역에 동학대정원 천진교 명의로 추모비를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교단의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과 재력이 바탕이 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한국민족종교총람』(민족종교협의회, 도서출판 한누리, 1992)

-이진우-

■ 목욕리 솟대

솟대란 원래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높은 나무 장대나 돌기둥에 앉힌 마을의 신앙 대상물을 일컫는다. 전통 샤머니즘에서 새는 영혼의 메신저, 혹은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곡령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긴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삼한시대부터 "소도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다. 역사가나 민속학자들은 소도가 오늘날의 솟대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솟대는 소도처럼 신성한 곳에 세워져 신의 영역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솟대는 마을 수호신으로 여기며 일종의 마을 신앙의 일부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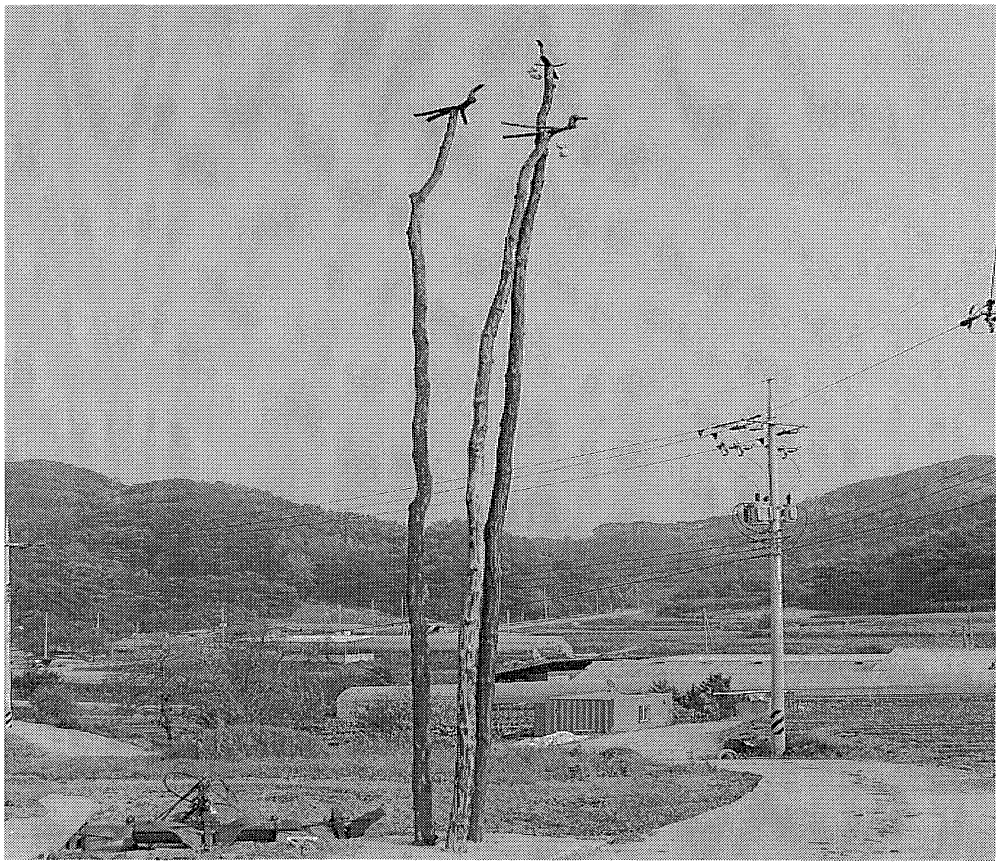
한때 온천개발로 떠들썩했던 산외면 목욕리. 선녀 약수터가 있는 외목마을 서쪽에 자리한 내목마을은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룻날 솟대를 모시는 당산제를 지낸다. 내목마을 솟대 당산제는 제액초복, 풍요다산의 의미와 더불어 화재막이의 의미가 강하다. 솟대 위의 새는 대개 오리라고 일컬어지며 일부 지방은 까마귀, 기러기, 갈매기, 따오기, 까치라 일컫기도 한다. 내목마을에서는 모양도 그러하려니와 사람들은 이것을 오리라고 칭하였다. 오리가 물에 놀기 때문에 불을 방지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을 어귀에 짐대(솟대)를 세운다. 재질은 소나무이며 맨 위에 역시 같은 소

나무로 깎아 만든 나무오리를 올려놓고 곡식을 담은 소형의 오리밥을 천으로 감싸서 매달아 놓는다. 마을 안쪽에 당산나무가 있어 이곳에 따로 당산제를 지냈으나 나무가 고사한 후에는 짐대를 세운 뒤에 짐대 앞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내목마을의 경우에는 솟대 당산에 솟대를 3개 세우는데 그중 한 개는 해마다 교체해서 세운다. 많이 세울 때는 7~8개를 세우기도 하였다. 최근에 마을 입구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면서 솟대를 세울 구멍을 3개만 남겨 두었다. 오리의 부리 3개는 서쪽에 있는 '화경산'을 향하고 있다. 화경산이 불의 기운이 강해 풍수상으로 물의 기운인 오리를 통하여 산불 재액을 막기 위함이다.

솟대 당산제의 순서



사진제공: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이진우

3개의 솟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솟대 하나를 1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오리를 매달기 위한 장대는 앞산에서 채취한 긴 소나무를 사용한다. 산에서 잘라 온 소나무 장대를 먼저 가지치기를 하고 껍질을 벗긴다. 소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좀이 슬지 않고 오래도록 간수하기 위함이다.

솟대 꼭대기에 소나무 오리를 못질하여 붙이고, 복주머니를 매단다. 삼한시대에는 솟대에 방울과 북을 매달았으나 내목 마을은 한지를 겹쳐 주먹만 한 크기로 둥글게 만들고 그 속에 쌀과 동전을 넣은 복주머니를 매단다. 이 복주머니를 매단다는 것은 남아 선호사상에서 득남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오리 역시 알을 많이 낳는 새라서 다산을 상징하기도 한다.

나무오리와 복주머니를 매달은 긴 솟대는 지난번에 세워진 솟대 구멍에 밑동을 대고 2개의 긴 대나무를 엮어 만든 기구로 순식간에 들어 올려 세운다. 세워 놓은 솟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콘크리트 구멍 빈 곳에 나뭇가지를 박아서 튼튼하게 만든다. 이어서 당산제를 위하여 신성성이 부여된 솟대 아래를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가 끝나면 제사상을 놓고 음식을 진설한다. 돼지머리가 오른다. 마을 주민들과 이웃에서 찾아온 주민들이 지전을 돼지 입과 코에 꽂아놓고 술잔을 올리고 두 번 절을 한다. 여러 사람들이 순서대로 헌관으로서의 역할을 끝내면 이어서 풍물 한마당이 펼쳐진다. 주민 풍물패가 신명나게 풍물을 울리면 마을 주민들도 어깨춤을 들썩인다. 음복을 하고 철상을 하면 제사 음식을 마을 모정으로 옮겨서 주민들과 찾아온 손님들이 함께 식사 겸 간식으로 먹고 술로 흥겨움을 더한다. 이때에도 풍물을 쳐서 분위기를 돋우고, 주민과 찾아온 손님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특이한 것은 이 마을은 줄다리기 당산제를 하는 정량리와 협동을 한다는 것이다. 내목마을 당산제가 열리는 날에 정량리 주민들이 찾아와 뒷풀이로 어울리는 모습이 정겹다.(『산외면지』 외)

-이진우-

■ 소고당 고단여사와 김영채 가옥

고단은 현대의 가사문학 작가로 호는 소고당(紹古堂)이며, 1922년 3월 20일(음력 2월 22일)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죽심원에서 부친 고희석(高熹錫)과 모친 민영(閔泳) 사이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1935년 장흥초등학교 졸업 후 조부로부터 한학(漢學)을 수학(受學)하고,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강의록(講義錄)으로 심상과(尋常科)를 수료하였다.

1939년 12월 30일에 전북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의 500년 전통의 명문가 도강 김씨 집안에 8남매의 맏며느리로 시집 와서 시조부모님과 시부모님을 함께 봉양했으며 시어른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의 규방가사 작품인 「소고당가(紹古堂歌」에 적고 있다. 남편인 김환재(金煥在·1920~2010)와의 사이에 네 딸과 세 아들을 두었다.

소고당 고단은 55세의 늦은 나이에 규방가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1976년 봄에 집 뒤채에 방을 들이는 공사를 하던 중에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충만한 행복감에 그 감동을 4·4조의 형태로 옮겨본 것이 창작 동기였다고 한다. '소고당(紹古堂)'이란 "옛(조상·정신·문화)것을 이어가는 집"이라는 뜻이다. 자신이 사는 집의 이름이 곧 자신의 호가 되었다. 그렇게 후원 별당에 현판을 걸고 그 건물을 지은 동기를 담아 1976년에 소고당가를 지었다.

1976년 『전북문학』에 「소고당가」를 신작가사란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이듬해인 1977년 12월에는 조애영(趙愛泳), 정임순(鄭任順)과 3인 공동으로 한국현대내방가사집(韓國現代 內房歌辭集)을 펴냈다. 이 가사집에는 조표자가(弔瓢子歌), 삼신기명애무가(三神器皿愛撫歌), 연묵회소풍가(硏墨會逍風歌), 소고당가(紹古堂歌), 평화사시사(平和四時辭) 등 다섯 작품이 실렸다. 1976년 이후 15년 동안 지었던 가사들을 모아 1991년 7월 고희기념으로 가사집 1권과 산문집 1권을 출간하였다.

1999년에는 『소고당가사집 속집』을 펴냈다. 작품 중에는「혼불작가 최명희(崔明姬)」가 있다. 자신의 둘째 딸과 동기 동창이었던 최명희와 인연을 회고조로

엮은 이 작품을 통해 『혼불』에 옮겨 실린 「조표자가(弔瓢子歌)」에 얽힌 사연도 살펴볼 수 있다.



소고당 고단여사 가사비(사진 제공: 김재영)

2004년 전남 장흥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2005년 전북 도지사로부터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받았다. 2003년에는 전남 장흥문화원에서 고향인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마을 앞에 소고당 규방 가사비를 세웠고, 2007년 정읍 산외중학교에 소고당 고단여사 가사비가 세워질 때 고단 여사가 직접 참석했다. 칠보면에 새로 지어진 태산선비문화관 2층에서 작품 전시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며, 2013년 10월에는 장흥에서 소고당 고단 규방가사 선집인 『평화사시사』가 출간되었다.

저작으로 고단, 조애영, 정임순 삼인 규방가사집 『한국현대 내방가사집』(1977), 개인 가사집으로 『소고당 가사집』상·하(1991), 『소고당 가사 속집』(1999) 등이 있다.

고단 시인은 「산외별곡(山外別曲)」외에 60여 편의 가사를 창작하였다. 가사문

학은 호남 지방의 선비들이 단연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여성 위주의 규방가사는 영남지방에서 성행하였다. 한국 현대 규방가사의 대표적인 분은 영남의 조애영과 호남의 고단이 쌍벽을 이룬다.

우리 가사문학의 효시인 정극인의 「상춘곡」, 담양에 살던 송순(宋純)의 「면앙정가(俛仰亭歌)」, 창평 출신인 정철(鄭澈)의 「성산별곡(星山別曲)」, 부안에 잠시 기거하던 백광홍(白光弘)의 「관서별곡(關西別曲)」, 태인 출신인 강진김씨 성은처사 김경흠(金京欽/1815~1880)의 가사작품 「삼재도가(三才道歌)」, 「불효탄(不孝歎)」, 「경심가(警心歌)」의 명맥을 잇는 가사문학이 소고당에 이르러 마침내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남편 김환재가 고단여사의 1999년 이후 작품들을 모아 가사집을 발간코자 정리하다가 2010년 작고하여 그 해 장남 김창균(金昌均) 부부가 『소고당가사제삼집전』을 발간하였다. 고단은 2009년 말 겨울에 세상을 떠났으며, 2010년 초에는 남편 김환재가 잇달아 세상을 떠났다.

소고당 고단의 평생의 반려자였던 시산(詩山) 김환재(金煥在)는 일제강점기에 중앙고보와 평양 대동공전을 졸업하였다. 전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말에는 산외면 평사리에 있는 고향집인 규당 고택(일명 金永采 家)을 돌보아왔다. 규당 고택은 평사낙안(平沙落雁)으로 유명한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에 60칸 규모로 김환재의 조부인 규당(圭堂) 김영채(金永采/1883~1971)가 1940년에 지은 집이다. 소고당 고단과 친교가 두터웠던 김소희(金素姬) 명창이 자주 찾아와 어울렸고, 『혼불』의 작가인 최명희도 친구 모친이던 소고당과의 인연으로 이곳을 찾아온 사연이 있다.

김환재는 2006년 KBS 전주방송총국(총국장 윤흥식)으로부터 '전북의 어른상'을 수상하였다. 무성서원(武城書院)과 완산사(完山祠/김유신 장군 사당) 원장으로 있으면서 옛 현인들의 문화인 고현(古賢) 선비문화를 복원하고 고현향약을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앞장서는 등 우리지역 향속 진흥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평가됐다. 전주향교 전교 재임 기간(1986~1988) 중 전통혼례를 처음으로 시행

했고, 531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국 최고의 향약인 고현향약이 보물 제1181호로 지정되는데 앞장서고, 향약의 다섯 가지 예인 오례집성을 간행, 전국 대학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에 배포하는 등의 선비문화 보급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조영애 · 정임순 · 고단 공저, 『한국현대 내방 가사집』, 1977/고단, 『소고당 가사집 상』, 1991/고단 ,『소고당 가사집 하』, 1991/허미자, 『한국 여성문학 연구』, 태학사, 1996/유종국, 『산외면지』, 산외면지편찬위원회, 2015)

-이진우-

■ 예동 동학농민혁명 최초 봉기탑

배들평의 농민들이 정읍천의 하류에 보를 막고 물을 대어 농사를 지어왔으니 부근의 동명을 따서 예동보라 하였다. 또 혹심한 가뭄에도 배들평만은 매년 풍년농사를 지어왔음으로 일명 '만석보'라 불리었다. 그런데 조병갑은 1892년 5월 고부군수로 부임하여 그해 겨울 만석보 아래에(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되는 지점 부근)보를 높이 새로 막는 역사를 시작했다. 만석보를 달리 '명례궁보(明禮宮堡)'라 하였으니 이는 명례궁(明禮宮)의 궁방전이 동진강 본류 시작점 부근에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조병갑이 지시하여 보를 높이 막음으로써 홍수가 지면 냇물이 범람하여 상류의 농민들은 오히려 홍수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다 가을에는 보세라 하여 매 두락에 보의 상답은 두 말, 하답은 한 말씩을 징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받아들인 보세를 예동·두전과 백산, 세 곳에 700여 석을 쌓아 놓으니 농민들의 원성이 비등했다.

조병갑과 아울러 균전사 김창석과 전운사 조필영의 수탈이 자심한데다 이속들의 작란이 심하였다. 1893년 가을에 고부 고을 그 가운데도 배들평 농민들은 이 억울함을 고부군수에게 소장을 올려 진정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11월에 40여 명이 고부군아로 몰려가 보세 감면을 진정했으나 군수는 오히려 양민들을 선동하는 난민이라 하여 장두 몇 사람을 구금했다. 농민들의 진정은 계속되어 다음 섣달에는 또 60여 명이 몰려갔으나 쫓겨나고 말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농민들은 다음해 1, 2월 마침내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로 가서 진정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정으로는 뜻을 이루기 어려움을 알게 된 농민들은 1893년 11월 서부면 죽산(대뫼)마을 송두호 집에 모여 숙의하여 봉기의 거사 계획을 정하고 사발통문을 각 마을의 집강들에게 보냈다. 농민들의 진정 사건이 있은 후 11월 30일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전임되었다. 그러나 다섯 명의 신임 군수들이 고부에 들어오지 않고 도로 조병갑이 도로 주저앉으니 고부 농민들의 분노는 폭발하였다.

1894년 정월 10일 밤 배들평을 중심으로 한 10여 촌락의 농악을 동원하여 그 중심지가 되는 예동에 걸군을 소집하니 수천을 헤아리는 군중이 모여 들었다. 이날 밤 전봉준은 군중을 두 대로 나누어 고부읍내로 향했다. 조병갑은 미리 연통을 받고 달아나고, 군아를 점령한 농민군은 형옥을 부수고 억울한 죄인을 석방하였으며, 군기고의 총기로 무장을 하였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한 부대는 마항시장으로 나와 배들 농민들의 원성이 표적이 된 만석보 신보를 허물고 예동과 두전에 쌓아 놓은 보세미를 농민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백산성을 쌓기 시작했다.

전봉준은 조창이 있는 함열로 진격하려고 했으나 고부 고을을 벗어나면 월경이고 반란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두어 달 동안 고부고을을 점령하였던 농민군은 3월에 신임군수 박원명과의 타협으로 해산하고 말았다. 이때 300명의 농민군은 전봉준과 뜻을 같이 하였다. 그중 50명은 전봉준이 무장으로 가서 손화중을 설득할 때 따라 갔고, 250명은 말목장터로 가서 무기를 장터 주변 민가에 숨겨두어 후일을 기약하고 해산하였다.(혹은 암약하였다고도 한다)

농민군 해산 후 10일이 지나지 않아 안핵사 이용태가 역졸 800명을 이끌고 고부에 들이닥쳐 농민들의 행위는 동학도의 소행이라 하여 갖은 학대를 가하니 고부고을 백성들의 원한은 뼈에 사무치게 되었다. 2차 거사는 이용태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유발되었다. 이용태는 4월 15일 파면되고 안핵사 이용태의 고부민란 동향 보고가 의정부에 의하여 왕에게 보고된 것은 4월 24일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나누어 제1단계 고부농민봉기, 제2단계 백산봉기(3월 기포), 제3단계(혹은 집강소 민정) 9월 봉기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집강소 민정을 한 단계로 설정하여 4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제1단계 고부농민봉기는 전봉준이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항거하여 일어난 고부군민의 거사였으니 성격상 민란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목적이 민란의 성격을 벗어나 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다. 보통의 민란은 목적이 고을의 수령을 징치하는데 국한되어 있는데 비해 고부의 경우는 군수를 징치하고 전라 감영을 함락하고 경사로 직행한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그 주도 인물들이 백산기포의 주역이란 점에서 고부농민봉기는 보통 민란의 경우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기점, 또는 그 봉기지를 발상지로 보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또 3월 봉기의 백산기포는 동학교의 조직이 동원된 거도적인 봉기로 또한 목적하는 바가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표방함으로써 고부농민봉기와는 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농민군들이 전라도를 대부분 장악하고 집강소 민정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미완이지만 혁명이라 호칭하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를 두고 신용하 교수를 비롯한 일단의 연구자들은 '무장기포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고창군은 이를 바탕으로 무장 '구수내'를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 기념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에서는 최시형 탄신일인 음력 3월 21일을 기해 '백산기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정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는 본래 백산기포일을 기념일로 해왔으나 유독 이날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 '황토현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열리는 기간에 천도교에서는 5월 11일을 기해 매년 황토현의 갑오동학혁명탑 앞에서 승전기념식을 열고 있다.

최현식은 『갑오동학혁명사』의 무장기포설고에서 "백산에서 각 지역의 농민군들이 모여 비로소 동학농민군으로서의 대오를 결성했으니 이곳을 기포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다". 이평면소재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갑오농민동학유적보존회(회장 서현종)에서는 이평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인식하고

예동과 말목장터 두 곳을 놓고 발상지 기념비를 세우는 문제를 논의한 끝에 예동 마을 광장에 2015년 현재 기념물을 건립하였다.(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이진우-

■ 서산사와 서산마을

동학농민혁명의 단초가 되는 고부농민봉기의 발상지로 불리는 이평 예동마을에서 작은 들을 사이에 두고 자리한 하송리 서산마을. 이곳에는 조선 중기 유학자이자 내단 사상가인 권극중을 향사하던 서산사(서산서원이라고도 함)지가 있다. 또한 서산마을은 증산교 창시자인 증산 강일순의 외가가 있던 마을로 강일순의 어머니 권씨부인은 권극중의 후손이다. 어머니 권씨 부인이 친정에 왔다가 태몽을 얻고 또한 친정에서 몸을 풀었으니 『증산천사공사기』에는 강일순의 탄강지가 서산리로 기록되어 있다. 후에 『대순전경』을 비롯하여 각종 강일순 기록에 본가인 우덕리 객망리(현 덕천면 신월리 신기마을)가 생가로 기록되었다. 강일순의 실제 탄강지이며 내단 사상가인 권극중의 유허를 찾아 서산마을을 찾는 이들은 주로 증산사상 신봉자와 선도사상을 연구하는 이들이다.

권극중(權克中)은 자가 정지(正之), 호는 청하(靑霞)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1585년(선조 18)에 고부군 답내면 서산리(지금의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서산마을)에서 태어났다. 1612년(광해 4년) 진사시(進士試)에 입격하여 태학관(太學館)에 있다가 광해군의 폭정에 실망하여 태학관에서 나와 향리로 돌아왔다.

권극중의 저서로는 『참동계주해(參同契註解)』 5권과 『청하집(靑霞集)』 7권이 있고, 『역대사요(歷代史要)』와 『비요복서결(備要卜筮訣)』이 있으며, 「중흥십조(中興十條)」와 「경연의대(經筵擬對)」등 정론과 경학에 관한 글이 있다. 1704년(숙종 30) 7월 전라도 관찰사 민진원(閔鎭遠)이 『청하집(靑霞集)』을 간행하고 1823년 8월 호남의 유림 송좌선(宋佐先)외 100명의 발의로 그 유허에 서산사(書山祠)를 세우고 향사하였다. 묘는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선영 아래에 있다.



서산사 유허비(사진 제공: 김재영)

참동계(參同契) 혹은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는 후한(後漢)의 위백양(魏伯陽)이 지은 도교 수련의 기본 원리와 철학을 담은 책이다. 권극중은 참동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내단 이론 체계를 구축한 조선 참동계학의 대가이다. 조선의 도교는 김시습에 의해 문호가 열리고 정렴에 이르러 수련의 꽃을 피웠으며, 권극중에 이르러 이론의 결실을 이루었다는 평을 받는다.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에서 "단학의 분야에서 함열 사람인 도사 남궁두(南宮斗)와 고부 사람인 청하자(靑霞子) 권극중(權克中)이 있는데 이들은 또한 방술을 수련하여 이름을 떨쳤다(丹學側 道士 南宮斗 咸悅人 權靑霞克中 古阜人 又以修鍊方術著名)", 라고 하였다.

홍만종(洪萬宗)의 『해동이적(海東異跡)』을 증보한 황윤석(黃胤錫)의 『증보 해동이적(增補 海東異跡)』에는 80인의 도교 인물의 사적을 기록하였는데 권극중에 대해서는 "동방단가문자(東方丹家文字)의 개산조(開山祖)"라 하여 한국 도교 사상사에서 권극중의 위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

箋散稿)』에서 이규경(李圭景)은 단학파의 저서로서 후대에 전해진 목록을 거론할 때 정렴(鄭磏)의 단가요결(丹家要訣), 이지함(李之函)의 복기문답(服氣問答), 곽재우(郭再祐)의 복기조식진결(服氣調息眞訣) 등과 함께 권극중의 참동계주해를 들었다.

그런데 영조 때 좌상을 지내고 청하자권공묘갈명(靑霞子權公墓碣銘)을 쓴 학암 조문명은 청하를 대유(大儒)라 일컫고, 사람들은 혹 단학이라 의심하지만 이는 선생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하집』을 간행했던 민진원도 권극중이 내단사상에 깊이 침잠했다고 평가한 정두경(鄭斗卿)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권극중이 표면상 유학자를 자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리학에 관한 식견이 뛰어난데 기인하였다. 김낙필(金洛必)은 자신의 저서인 『조선시대의 내단 사상』에서 "권극중의 학문은 삼교(三敎)를 넓게 섭렵하였으며 내단 수련에 더욱 깊었다."고 한 정두경(鄭斗卿)의 평가가 보다 종합적인 견해라고 피력하였다.

권극중은 조찬한으로부터 문학 교육을 받았고 권필(權韠/1569~1612), 이식(李植/1584~1647), 정두경(鄭斗卿/1597~1673) 등 도교적 기질이 농후한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정두경은 정렴(鄭磏)의 후손으로 권극중의 시문에 서문을 썼으며, 권극중은 당시에 편찬된 정렴의 시집에 서문을 써주었다.

권극중의 시문을 모아 놓은 『청하집』은 전라도 관찰사 민진원(閔鎭遠/1664~1736, 인현왕후의 오빠)이 1704년(숙종 30)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청하집』은 전 7권으로 구성되었다.(김낙필, 『조선시대의 내단 사상』 외)

-이진우-

■ 구마모토 리헤이 화호지장(熊本利平 禾湖支長)

-위치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 2길 12-8

-의의 : 일제강점기 전북 지역 최대 지주 구마모토 리헤이가 화호 지역의 넓은 농토에서 생산되는 미곡을 관리하기 위해 지은 가옥이다. 가옥의 입지 조건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택들의 구조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위계질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제가 한국을 영구히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했던 일본인 집단 거류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마모토 농장의 설립

구마모토 리헤이는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 출신으로 나가사키(下關) 상업학교와 게이오대학 이재과(慶應義塾 理財科)를 졸업하였다. 그의 부친은 일본 이끼섬 출신으로 배를 이용한 상업 활동을 통해 많은 재산을 형성하였다. 그로 인해 구마모토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게이오 대학에 재학 중 한국을 방문하여 시찰한 후 농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신문에 연재하였다. 이를 확인한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사 사장 모토야마(本山)는 구마모토 의견에 동조하고 출자금을 주며 한국 내 농지 매입에 착수할 것을 이야기 하였다.

한국 이주 초기 구마모토는 모토야마와 같이 일본 내 자본가들을 대신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1903년 10월에는 전라북도 옥구군 박면 내사리 및 태인군 화호리 두 지역에 농장을 개설하였다. 1907년 그의 농지는 1,500정보에 이르렀고 1925년경에는 군산 · 익산 · 정읍 · 김제 · 부안 등지에 모두 3,000정보의 농지를 소유하는 대지주로 성장하였다. 그가 이렇게 대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일제강점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점과 1910년 불어 닥친 경제 한파로 싼 값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마모토의 토지 소유 증가폭은 커졌으며 군산과 화호 이외에 대야, 지경, 상관 등에 지장(支場)을 두며 국책 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제외하고 개인으로서 전북지역 최대 지주가 되었다.

구마모토 농장 화호지장

구마모토 농장 화호지장에는 모두 27~28명의 직원이 있었다. 일본인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정읍, 익산 등지에서 고학력 한국인 직원들도 채용하였다. 다른 일본인 농장들과 달리 고액의 봉급을 지불하였고, 한국인과 일본인 직원 사이에 급여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로인해 구마모토 농장 화호지장에서는 연간 7만 석을 수확하는 거대 농장으로 변화하였다. 구마모토는 이와 같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군주나 다름없이 지냈다.

화호지장의 주요 농토는 김제 부량, 부안 백산, 정읍 화호 등지에 분포했다. 농토는 모두 12개 구로 나누어 담당 농업 기사에게 생산 지도를 시켰다. 저지대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로 개설, 녹비 재배, 추경(秋耕 · 가을 갈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농장이 안정 단계에 접어 든 이후에는 동경의 오다하라에 거주하며 가끔씩 들렸고 농장은 대리인을 통해 일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으며 관리하였다. 화호지장의 집은 화호지장의 관리인인 주임이 지켰다. 주임 아래에 경리과장, 농산과장 그 밑으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사음(마름)을 두고 소작인들을 관리하였다.

화호지장 농장 경영 방법

화호에 농장을 개설한 이후 구마모토는 농촌의 근대화라는 목적 아래 농업 생산량과 생활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일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농장 안에 진료소가 자리하게 되었고, 사음들을 중심으로 축산을 통해 퇴비 생산량을 늘리고, 늘어난 퇴비를 바탕으로 농사에 활용하여 생산량 증진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추경갈이, 종자개량, 축산지도, 수리시설 개선 등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갔다.

또한 다른 일본인 농장주들과 달리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뽑아서 농장의 관리를 맡겼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도 다른 일본인 농장보다 많이 지급하였다. 구마모타가 이렇게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소작농들에게서 거둬들이는 높은 이율의 소작료가 있었다.

구마모토는 높은 이율의 소작료를 징수하기 위해 농촌 근대화를 통한 생활 문화 개선과 생산량을 높여 나가는 일을 진행하였다. 화호 자혜진료소, 녹비제도, 추경갈이, 종자개량, 축산지도. 사음 우대를 통한 생산력 증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구마모토는 식민 당국의 지도 방침을 성실히 이행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었고, 그를 근거로 높은 이율의 소작료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 소작농들에게는 자신이 맡은 소작지에서 많은 양의 미곡을 생산해 내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는 달콤한 유혹을 제시하며, 생산량을 늘리고 소작료를 높이는 방법을 병행해 나갔다.

이와 같은 농장경영을 통해 구마모토는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지만 한국인 소작농들은 비료 값, 농자금, 수리조합비, 소작료 등 여러 명목으로 수탈을 당해 빈곤한 생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34년 이후에는 소작쟁의를 일으켰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구마모토 농장 화호지장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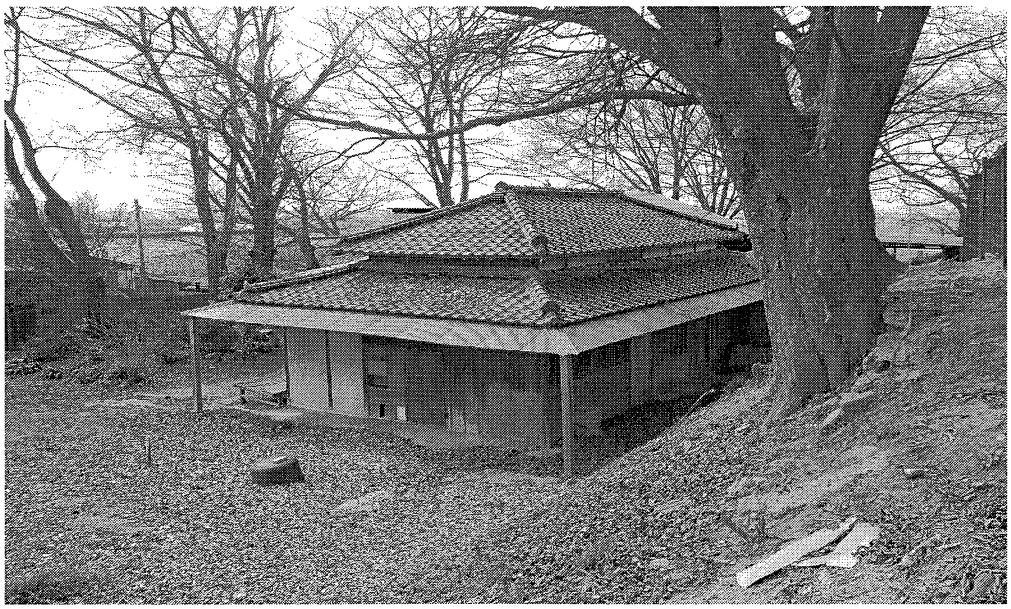


사진 제공: 사단법인 둘레연구원 정원기

구마모토 농장 화호지장은 전형적인 일본식 주택으로 집 앞에 넓은 정원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붕에는 기와를 올리고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여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었다. 대문에 들어서면 약간 높은 언덕을 올라가면 집의 중앙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집의 중앙 부분을 기준으로 왼편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응접 공간과 사무용 건물이 앞으로 튀어 나와 있으며 오른편에는 거주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이 두 공간은 내부의 좁은 복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해방 이후 소유자가 바뀌며 형태가 변형된 부분도 있지만 곳곳에 일본의 전통가옥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본래 구마모토 화호지장은 2층으로 된 '1급' 주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모습을 보면 2층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지리학적으로 좋은 곳에 집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1급'이라는 단어를 통해 화호지장이 이 지역에서 최고급 가옥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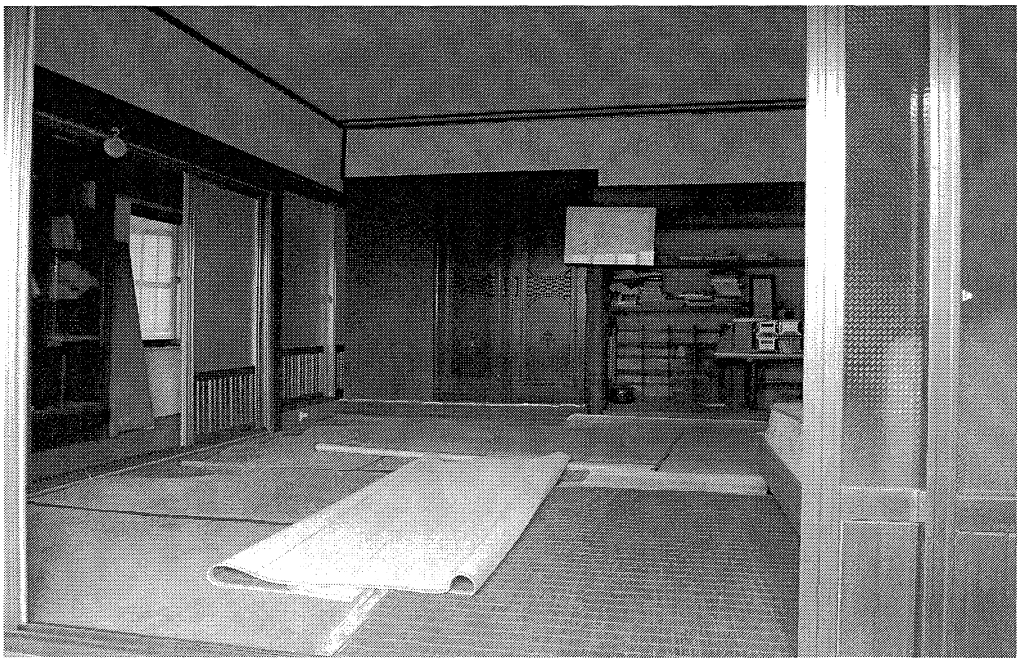


사진 제공: 사단법인 둘레연구원 정원기

화호지장의 주위로는 농장에 근무했던 과장들이 생활했던 집이 '2급'으로 구

분되어 규모나 설계에 있어 '1급'보다 작은 규모로 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급' 아래로는 '3급' 집들이 있었는데 함석이나 슬레이트로 지붕을 만들고 구조도 단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는 한국인 관리들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이 명당이라고 생각하는 당산나무 주변에는 구마모토 리헤이 지장이 위치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바로 옆 주변에는 일본인 과장급 사택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일본인 과장 사택 바깥쪽으로는 일반 직원들이 사는 집이 있었다. 가장 외곽에는 한국인 직원들의 집이 있다. 이와 같이 배치된 공간과 가옥 구조를 통해 일제강점기 화호지역 안에서의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이와 차별이 존재했다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마모토 농장 미곡창고

-위치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 2길 16
-정의 : 일제강점기 구마모토 농장 화호지장에서 생산된 미곡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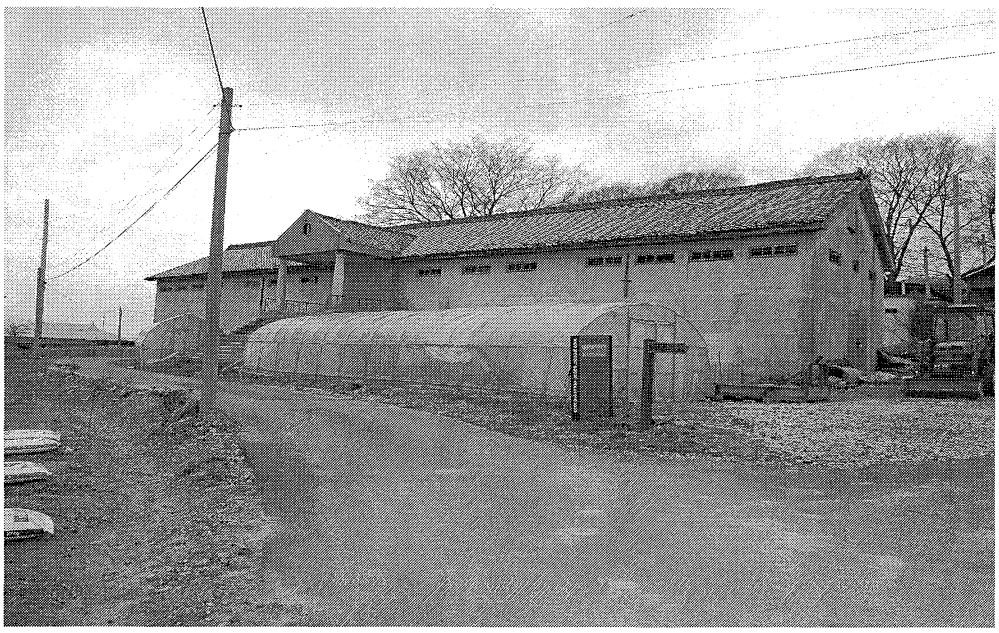


사진 제공: 사단법인 둘레연구원 정원기

구마모토 농장 미곡 창고는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용서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관은 개나리색으로 덮여 있는 시멘트 건물이다. 멀리서 보면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본래는 현재 남아 있는 건물과 비슷한 규모의 것이 5개 정도 더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재는 1동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본래 용도는 일제강점기 구마모토 농장에서 생산된 미곡들을 도정하기 전 보관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의 외부 모습은 아파트 2층 정도 높이에 시멘트로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었고, 내부 천정 지붕은 목조 기둥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현재는 시간의 흔적만 고스란히 맞으며 군데군데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내부로 들어가면서 미곡 창고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면 시간의 축적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제공: 사단법인 둘레연구원 정원기

아파트 2층 정도 높이의 창고 외부 모습을 통해 일제강점기 소작농들이 열심히 생산한 많은 양의 미곡이 쌓여 있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는 화호 중앙병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는 2층 돌계단 위를 올라서서 바닥으로 고개를 내리면 확인할 수 있는 붉은색의

십자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호 중앙병원은 자혜진료소에서 소작농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던 김성환 박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병원이 운영될 당시 인근 김제, 부안지역 등지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 찾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전쟁과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면서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자 1972년 문을 닫게 되었다.

뒤이어 화호여자고등학교로 사용 되었는데, 창고 내부 벽면 곳곳에 한자로 낙서된 흔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 기능이 마을 옆에 새롭게 들어선 인상고등학교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사용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채로 놓이게 되었다. 가끔씩 마을 외부에서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 다녀갔던 사람들이 남긴 일명 '떳다방'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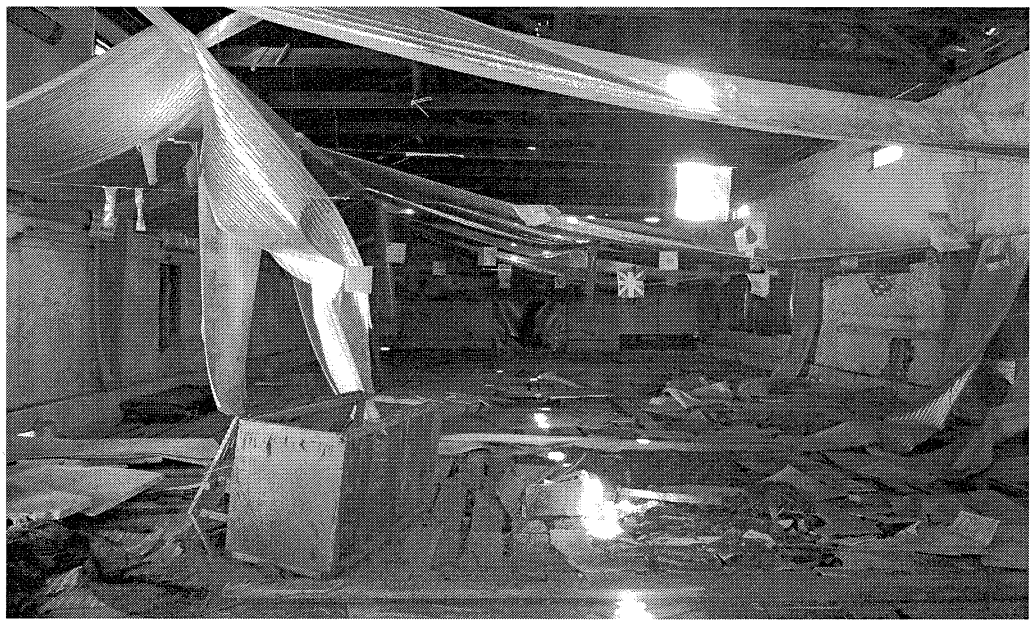


사진 제공: 사단법인 둘레연구원 정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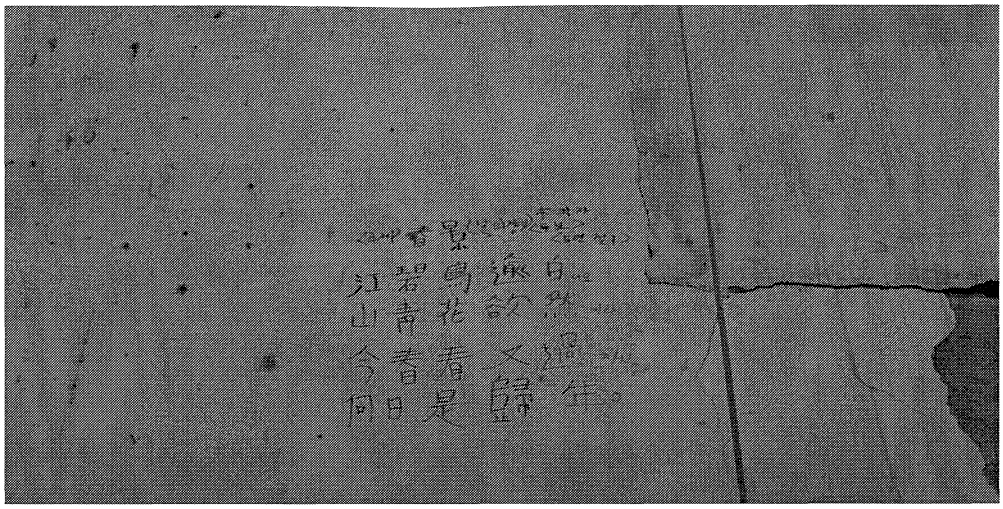


사진 제공: 사단법인 둘레연구원 정원기

-정원기-

다우에 타로 농장사무실

-위치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 4길 31
-정의 : 일제강점기 화호에 거주했던 일본인 지주 다우에 타로가 자신의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 세운 사무실로 일제강점기 한국인 소작농의 수탈을 엿볼 수 있는 수탈 시설

다우에타로(田植太郎)는 1898년(메이지 31) 일본 고치현 다카오카군(高知縣高岡郡)에서 출생하였다. 1915년(대정 4) 고치 현립제1중학교(高知縣立第一中學校)를 졸업하였고, 이후 농장 경영에 뜻을 두고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넘어왔다. 한국으로 넘어올 때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실시한 농업이민 방법을 이용하였다.

한국 이주 초기에는 규모가 작은 소농으로 시작하여 후에 대지주로 성장하였다. 다우에 타로가 대지주로서 많은 농장을 소유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구마모토와 같이 농장 경영에 있어서의 탁월한 능력과 일제강점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큰 도움을 주었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수탈을 기본 통치 방향으로 삼았던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식은 일본인 자본가들이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다우에타로는 농장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동양척식주식회사, 식산은행과 같이 식민지 금융기관을 활용하였다. 식민지 금융기관을 통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한국인에게 빌려준 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들이 소유했던 농토를 빼앗아 가는 방법을 통해 토지를 늘려나가는 방법을 취하였다. 토지를 늘려갈 때는 금강, 만경강, 동진강 등과 같이 강 주변에 형성된 비옥한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농장을 확대해 나갔다. 다수의 소작인을 거느리며 연간 벼 7천석의 수확을 올렸다. 그 결과 1930년 초반 다우에 타로는 화호를 중심으로 답(沓) 270정보, 전(田) 30정보 합 300 정보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가 되었다. 화호에서는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의 뒤를 잇는 대지주가 된 것이다.

구마모토 리헤이가 일본에 거주하며 대리인을 통해 농장을 관리했던 거와 다르게 다우에 타로는 화호에 거주하며 농장을 직접 관리하였다. 2층으로 된 건물 가운데 1층은 농장 사무실로 2층은 가정집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하는 통치 방침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농업경영 방법 개선, 농가경제 실현, 농촌진흥운동 등을 실시해 나갔다. 화호 지역에서는 학교조합 관리자로 소학교 경영에 관여하고 동진수리조합 평의원에 선출되어 활동을 했으며, 지역의 공공사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공로자병감』에 실려 소개되기도 하였다.

구마모토 화호지장이 마을의 중심부이자 높은 곳에 위치한 것과 달리 다우에 타로 농장 사무실은 그 보다 낮은 평지 지역에 놓여 있었다. 낮은 평지 지역에서 오는 외소함을 보완하고자 2층으로 지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에는 화호우체국 건물로 사용되었으나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 간 이후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는 마을의 중심부에서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사진 제공: 사단법인 둘레연구원 정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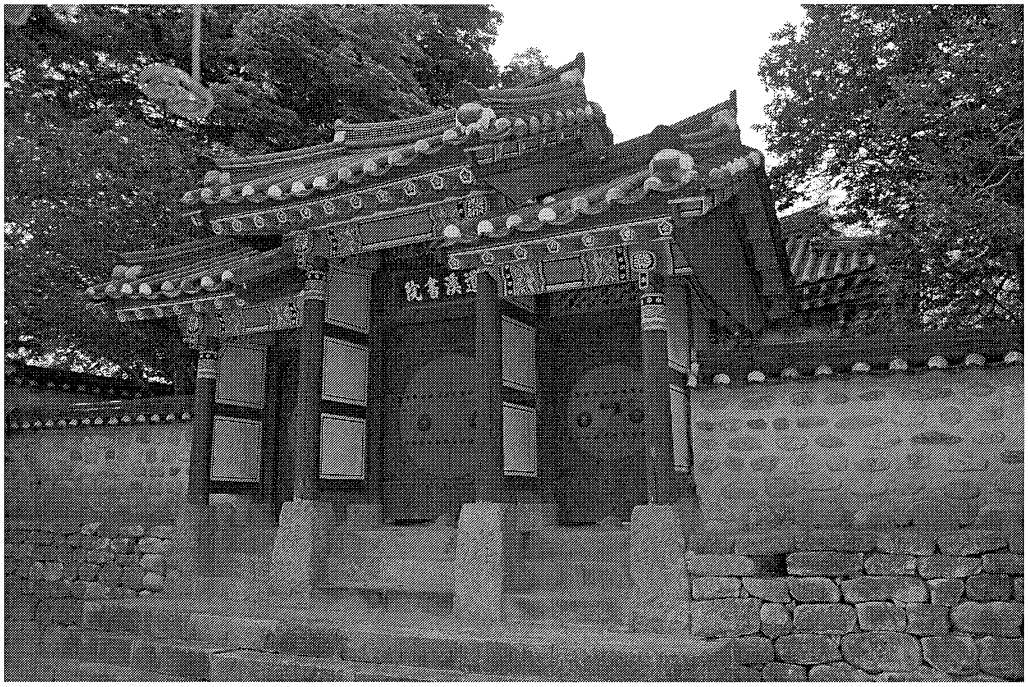
-정원기-

도계서원

오봉(鰲峯) 김제민(金齊閔)이 천태산(天台山) 오봉 아래에 집을 짓고 후진을 교육하니 이곳이 바로 도계서당(道溪書堂)이다. 정유난(丁酉亂)에 왜적이 다시 해남에 침입해 오자 김제민은 의병을 거느리고 나가 9회에 걸친 싸움으로 왜적을 대파했다. 적의 소굴을 찾아 쳐부수니 적이 감히 육지에 오르지 못하였다. 그는 이때의 경험으로 산천의 형세를 군정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적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담은 보방요무(保邦要務) 42조를 저술하여 조정에 올리려고 상경했다가 1599년(선조 32) 2월 22일 서울에서 서거하였다. 그의 나이 73세였다.

묘는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만종산에 있으며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이 제문(祭文)을 짓고 동토(童土) 윤순거(尹舜擧)가 묘갈명(墓褐銘)을 지었다.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되고 병조판서(兵曹判書)의 증직이 내렸으며, 1673

년(현종 14)에 향리인 도계리에 도계서원을 세우고 향사하여 1829년(순조 29) 병조판서의 증직을 내리고 1854년(철종 5)에 충강(忠剛)의 시호가 내렸다. 도계서원과 함께 장성의 오산사(鰲山祠)에도 배향되고 있다.



덕천 도계서원(사진 제공: 김재영)

오봉집 3권이 전하고 목판은 도계서원에 보존되어 있다. 그의 저서는 많았으나 병화에 대부분 인멸되고 오봉집에 보방요무 한 편이 남아 있다. 1695년(숙종 21) 외현손 이익태(李益泰)가 제주에서 문집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도계서원은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79호이다. 덕천면 도계리에 있으며 소유자는 의성김씨 종중이다. 규모는 사우가 3간, 유물각 3간, 강당 3간, 내 외삼문 각 3간, 수직사 2간으로 되어 있다. 1693년(현종 14)에 김창집, 민진원의 주창으로 창건한 서원으로 익재 이희맹, 오봉 김제민, 모암 최안, 태천 김지수 선생 등을 향사하다가 1697년(숙종 23)에 죽헌 김재안을 배향하고, 1840년(헌종 6)에 학산 김흔을 추가 배향하여 오다가 1868년(고종 5)에 조령에 의하여 훼철되었다가 1913년에 유허비를 세우고 1962년 4월 18일 중건하여 퇴휴재 김섬,

안식와 김습을 추가 배향하여 총 8현의 연벽서원(聯壁書院)이다.

사우의 건물로는 오봉(鰲峯) 김제민(金齊閔)의 서당이었던 도계서원과 유물각이 있다. 유물각에는 오봉의 문집목판 13매가 소장되어 있고, 태천집목판 30매가 보관되어 있다. 오봉집은 1684년인 숙종 10년 도계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제사 지내는 날은 음력으로 매달 9월 중정이다.(『신편 정읍 인물지』, 『근 · 현대 인물한국사』, 『정읍 문화재지』)

-이진우-

(사) 정읍역사문화연구소
부설 정읍근현대사연구회

전북 정읍시 학산로 89-36(상동 완당빌딩 202호)

고　　문-김종호(고려병원 원장/정읍문화사랑 회장)
명예회장-김방룡(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전 총장비서실장/유학연구소 부소장)
이 사 장-김재영(세계문화유산 전라북도 위원/문학박사)
자문위원-이흥재(전 전북도립미술관장/문학박사)
자문위원-이창석(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자문위원/전 정주고등학교 행정실장)
자문위원-조인숙(창암이삼만서예술문화진흥원 이사장/철학박사)
자문위원-김승대(전북도청 문화유산과 사무관/문학박사)
자문위원-김진돈(전라금석문연구회장/전북 문화재 전문위원/미술학박사)
자문위원-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명예회원-이병렬(공주대학교 외래교수/지리학박사)
명예회원-임장훈(전북일보 기자/정읍시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
부이사장-이상섭(부설 정읍근현대사연구회 부회장/전 '얼'학회 기획총무)
부이사장-안후상(독립운동사전 편찬위원/문학박사)
연 구 원-곽형주(고사부리문화연구회장/정읍선비문화관 운영위원)
연 구 원-박상주(원광대학교 외래교수/고수)
연 구 원-박경철(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전북지부 정읍지회원)
연 구 원-박경희(정읍근현대사연구회원/'면사고' 회원)
연 구 원-서혁기(피향정문화축제제전위원회 이사/극동소수력발전소 이사)
연 구 원-유진섭(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전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연 구 원-이진우(정읍통문 대표/사단법인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연 구 원-정원기(사단법인 '둘레' 연구원/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사)
연 구 원-이광윤(정읍경찰서/근현대사연구회 부회장)
연 구 원-오승옥(인쇄나라 집현전 대표/예원예술대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석사)
연 구 원-유종화(시인/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연 구 원-정금성(정읍N사람 대표/정읍활력연구소 대표)